

수필가 田淑禧의 초기소설 연구

: 소설사적 의의와 장르전환의 내적 필연성을 중심으로

서정자*

차례

1. 들어가면서
2. 전숙희의 초기소설과 수필로의 장르전환
 - 2.1. 전숙희 초기소설의 의의
 - 2.1.1. 여성의 자기실현문제와 남성의 허위식 고발
- 「코스모스」 「애정(愛情)」 「회신(灰燼)」
 - 2.1.2. 노인 등 소외된 계층의 삶 추적
- 「시골로 가는 노파」 「탄식하는 피주부」 「우화」 「귀로」
 - 2.2. 소설에서 수필로의 장르전환, 그 내적 필연성
3. 나오면서

〈국문초록〉

이 글은 전숙희의 초기소설을 발굴 분석하여 소설사적 의의를 규명해 보고, 전숙희소설의 특성에서 수필문학으로 장르 전환하는 내적 필연성을 살펴 본 것이다. 전숙희는 1939년 『여성(女性)』에 「시골로 가는 노파」를 실음으로써 작가로 등단하였는데 이후 작가로 활동하며 57년까지 10여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본고는 등단하기 전 전숙희가 이화여전 문과 재학 시 발표한 단편 「코스모스」(1937)와 41년 발표한 「애정(愛情)」을 발굴하여 이 소설이 여성의 자기실현문제를 지식인여학생의 시선으로 그린 문제작이며 여성소설사에서 최초로 슈퍼우먼콤플렉스를 소설화 한 점에 주목하였다. 육이오전쟁 후 발표한 「범부범부(凡夫凡婦)」 「회신(灰燼)」 「미완의 서」등도 여성심리소설로서 주목되는 작품들이다.

* 초당대 명예교수

문학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며 작가로 출발했으나 해방, 육이오전쟁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 작가는 소설쓰기에서 수필쓰기로 장르를 전환한다. 본고는 전숙희 소설에서 일인칭 화자의 시점을 즐겨 쓰고 자기고백적인 체재를 대담하게 쓰며 구성상으로 시간적 역진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전숙희 소설적 특징이 수필로 쉽게 장르전환을 하는 내적 필연성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뒷받침으로 전숙희가 토로한 수필쓰기 방법을 찾아 제시하였으며 이는 초기소설의 발굴 및 여성소설사적 평가와 함께 전숙희 문학연구에 한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전숙희 초기소설, 장르전환, 「코스모스」, 「애정(愛情)」, 「회신(灰燼)」, 슈퍼우먼 콤플렉스, 『이화』, 『탕자의 변』

1. 들어가면서

수필문학만이 아니라 국제펜클럽활동, 『혜성』 『동서문화』 『동서문학』 등 저널 창간 및 운영, ‘한국현대문학관’과 계원예술고등학교 및 계원예술대학의 설립 등을 통해 한국문화예술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벽강 전숙희 선생의 화려한 이력은 그의 문학세계를 오히려 가려온 감이 없지 않다. 전숙희는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성취를 이루어 경이감마저 느끼게 되지만, 이 성취의 핵심에 문학이 있었고, 작가 자신, 오래 동안 문단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의 문학세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거나 평가가 이루어져 있으리라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의 수필문학은 열일곱 권의 수필집¹⁾과 7권의 문학전집²⁾ 등으로 출간되어 있으나 이제 겨우 수필문학세계 탐색이 시작된 정도이다.³⁾ 작품연구를 위해서

1) 전숙희 수필집 목록은 참고문헌 참조.

2) 전숙희, 『전숙희문학전집』 전7권, 동서문학사, 1999.

3) 본고는 초기소설연구에 집중하므로 수필문학연구사를 간략히 정리한다.

우선 전집에 수록된 작품을 비롯하여 수록되지 않은 작품들을 찾아 발표 순으로 정리해야 할 것⁴⁾, 다시 말해서 작품연보가 되어있지 않으며, 그리고 소설로 일찍이 등단한 그의 초기소설들이 그 비중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임에도⁵⁾, 아직까지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 등의 두 가지를 우선 지적하면서 본고를 시작한다.

전숙희는 1939년 10월 『여성(女性)』에 단편소설 「시골로 가는 노파」를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작가로 등단했다. 전숙희의 작가연보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 소설이 발표되는 『여성』 편집후기에서 “여류문단이 침체로 소리 높은 차제, 전숙희씨가 「시골로 가는 노파」를 들고 첫소리를 칩니다. 필자는 작년 봄 이전 문과를 나온 평복 선천 출생으로 오직 창작도(道)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재원입니다. 모름지기 문단은 기대를

김현주, 「긍정적 문화로서의 수필-전숙희론」, 『한국근대 산문의 계보학』, 소명출판, 2004. 김현주는 전숙희의 수필을 “진·선·미라는 영원불변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이상을 추구하며 그러한 인간적 이상의 바로 남녀 간의 사랑, 자녀와 가족에 대한 사랑, 민족과 나라에 대한 사랑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의 개조와 사회의 개혁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고도 했다. 한편 전숙희의 글은 현학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292~295쪽.

김상태, 「장르의 관점에서 본 전숙희의 수필」, 『작고문인 재조명 벽강 전숙희수필가』, 한국여성문학인회 제16회 정기세미나, 2011년 6월2일, 자료집, 9~20쪽. 김상태 교수는 전숙희의 수필을 서정수필 서사수필 논술수필, 기행 수필 등으로 나누어 장르의 관점에서 전숙희의 수필을 살폈다.

이덕화, 「전숙희 수필에서 나타난 확신에 찬 비전」, 위의 자료집, 23~33쪽. 이덕화 교수는 전숙희의 수필은 여성적 글의 특징인 끈적끈적함과 서정적 색채를 찾을 수 없으며 이는 전숙희의 글쓰기가 소설쓰기에서 비롯된 객관적 시선 때문이라 보았다.

- 4) 전숙희는 전집 머리말에서 “전집으로 출판을 하자면 50년대부터 시기별로 정리해서 묶어야 마땅하겠으나 꼼꼼치 못한 성격이라 그동안 정리하고 챙기지 않아 부득이 테마별로 편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5) 전숙희 자신도 “1954년, 나는 『당자의 변』이라는 첫 번째 수필집을 가지고 문단에 제출발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데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잠시 휴식하며 관망하며 축적하며 있었을 뿐 나의 시작은 이미 1930년대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라고 해서 1930년대 작품 활동에 의미를 두었다.

가지고 받들어 족할 줄 압니다.”⁶⁾ 라고 써서 이 작품 게재가 등단과 관련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대문인사전은 전숙희가 모두 7편의 소설을 발표한 다음⁷⁾, 수필에 전념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전숙희의 초기소설작품은 등단 전 이화여자전문학교 재학 시에 교지인 『이화』에 발표한 단편소설 『코스모스』(7집, 1937)⁸⁾와, 역시 재학 시에 영어로 쓴 단편 「들국화」가 있으며⁹⁾이에 더하여 “졸업반 때 신춘현상장편소설모집에 응모하기 위해 장편 『만종晚鐘』도 써서”¹⁰⁾ 등단 이전과 이후 도합 13편에 이르는 소설(콩트 포함)을 쓴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소설가 전숙희가 수필로 장르를 바꾼 이유와 함께 그의 소설세계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제기된다.

한편 벽강 전숙희 선생 추모특집¹¹⁾의 연보에 의하면 작가의 출생연도가 가족의 증언에 의하여 1919년에서 1916년으로 정정되었는데 이화여전문과 입학연도도 이번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1934년이 아니라 1933년임이 밝혀져¹²⁾ 이화여전 재학은 1938년 졸업¹³⁾까지 5년에 걸친 것으로 된다. 입학과 졸업 연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작가의 생애만이 아니라 문학

6) 편집후기, 『여성』, 조선일보사 출판부, 1939.10, 94쪽

7) 권영민, 『한국근대문인대사전』, 전숙희 편, 아세아문화사 1990, 1070쪽.

8) 「코스모스」를 발굴하게 된 동기는 신동한, 「눈부신 활동이 계속 이어지기를」, 구상, 김남조 외 94인, 『내가 본 전숙희』, 동서문학사, 1999에서 이화의 교지에 전숙희 선생의 소설이 실린 것을 보았다는 글이 계기가 되었다. 『이화』6집에는 수필 「낙화」가 실려 있다. 이 수필이 최초의 작품인 듯하다.

9) 이 소설은 미국인 교수 추천으로 해외 잡지에 게재했다고 한다. 전숙희, 「쓰다는 일」, 『전숙희 신작 에세이 또 다시 사랑의 말을 한다면』, 제삼기획, 1987.7 96쪽

10) 위의 책, 같은 쪽. 그러나 졸업반이 아니라 입학한 해에 쓴 것으로 조사된다. 찾아본 바로는 1934년 『조선일보』“천원현상장편소설모집” 예선통과자 명단에 전재경 田在暉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1933년부터 1938년 졸업 시기까지 『조선일보』에서는 이 “천원현상장편소설모집” 외에 장편소설 모집은 없었다. 본고는 전숙희가 전재경이라는 가명으로 응모했다고 보고 본고에서 논의한다.

11) 『문학관』47호, 「벽강 전숙희 선생 추모특집」, 한국현대문학관, 2010.9.10.

12) 「각 학교 금년도 신입생 성명 이화여자전문학교 문과 24명」, 『중앙일보』1933. 4.4. 입학생 명단에 전숙희 田淑禧가 있다.

13) 「이화여전 졸업식」 『매일신보』1938.3.12. 졸업생 명단에 전숙희가 있다.

을 구명하는데도 중요한 일이다. 여고시절부터 글쓰기에 재능을 보였던¹⁴⁾ 전숙희는 전문학교 재학시절, 수필과 단편만이 아니라 장편소설까지 썼다는 사실 외에도 시나리오도 썼다고 한다.¹⁵⁾ 전숙희의 수필에 나타난 전기적 사실을 보면 재학 시 영화에도 관심이 있어 책상 위에는 학교 책 보다 영화에 관한 책이 더 많았을 정도였고 졸업 하면서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 조감독으로 데뷔하여 영화『어화漁火』를 찍기도 했다. 서항석에게 연극이론을 배워 동인극단을 만들어 연극을 하기도 했으며, 문과 이면서도 법률을 전공하고 싶어 정광용 선생에게 법률공부를 하기도 했다.¹⁶⁾ 기타도 춤도 이 시기에 배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전숙희는 전문학교 시절 그 관심의 범위는 문학과 영화, 연극, 법률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쳐있다. 수필가 전숙희가 초기에 소설을 썼다는 주목되는 사실과 아울러 이화여전시절 보여준 이러한 관심영역의 다양성은 이후 글을 쓰면서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병행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점이라 할까. 전숙희는 해방을 맞을 때 이미 네 자녀의 어머니였으나 미군정 시 통역으로 활동했고, 1950년에는 손소희와 함께 다방 '마돈나'를 운영하면서 문예지 『혜성』을 창간¹⁷⁾했다. 육이오전쟁 후에는 첫 수필집 『탕자의 변』을 출간하여 수필가로서 입지를 굳힌 후, 경향신문사 기사를 거쳐, 미국 문화계 시찰을 마치고 돌아와 여행기 『이국의 정서』를 출간하며, 주목받는 문인이면서 1958년에는 다시 다방 '마돈나'를 운영하는¹⁸⁾ 한편 국제펜클럽한국본

14) 여고시절 작문시간에 '우리선생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1등으로 뽑혀 크게 칭찬을 받았다. 「습작시절」전집 1권 25쪽

15) 「사령장 대신 메가폰 최초의 여성영화감독 이전문과 제복 버는 전숙희양 ◇…낭춘 맞는 영화계의 일 삽화」, 『매일신보』1938.4.2. 이 영화 「漁火」는 한국영상자료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필름이 남아있다고 나온다.

16) 전숙희, 「육망의 거리에서」, 「어둠이 가면 빛이 오듯이」, 문음사, 1988, 82쪽. 수필 「육망의 거리에서」는 전집에 실리면서 내용이 절반 삭제된다.

17) 발행인 손소희 편집인 전숙희. 오영식,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2009 참조. 유부용 성악가 한 사람이 더 함께 했고 조경희 수필가가 기자였다고 증언한 조경희 선생의 글이 있다. 「나와 전숙희」, 『내가 본 전숙희』, 동서문화사, 1999, 312쪽. 필자가 찾은 『혜성』지 3호 광고를 보면 이 잡지가 문예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전숙희, 「백 환짜리 화제, 여류문인의 다방 진출기」, 『동아일보』, 1958.4.19

부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전숙희의 초기시대라 할 이화여전 재학시절 또 그 이후로 이어지는 삶의 전반기는 질풍노도의 시절이었던 것 같다. 일제 식민지, 해방, 육이오전쟁 등 격동기를 살아오는 동안 자살 미수 경력이 세 번이나 되었다는 전숙희다. 생에 대한 이만한 치열성이면 그가 이룬 문학과 삶이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수필 속에 나타난 전숙희의 전기적 사실들에서 세 가지를 주목하게 된다. 하나는 아버지다. 전숙희의 대표작에는 어머니를 쓴 글이 많고 어머니를 칭송하고 있지만 전숙희는 어머니와 같은 여성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신한 가부장적인 딸이 되었다. 아버지는 아홉 살에 기독교에 입문하여 평생을 신앙인으로 살아 가정경제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처럼 하나님 책임져 주리라 믿었다. 그런 비현실적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도와야한다는 만딸로서의 책임감이 전숙희의 삶에 상당히 큰 압박이 되었다고 본다. 둘째는 이화여고 동맹휴학사건이다.¹⁹⁾ 친구를 배신할 수 없어 억지로 맹휴에 동의했다가 겪은 40여 일의 옥살이²⁰⁾는 전숙희의 생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아버지의 신앙생활은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어 전숙희도 평생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만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과 육이오 등 이데올로기로 인한 비극이 지뢰밭처럼 깔린 시대를 살면서 전숙희가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일관한 것은 이때 겪은 옥살이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16세 어린 나이에 겪은 40일간의 옥살이에 대해 전숙희도 ‘내 일생에 처음 살아 본 철창생활은 두 고두고 나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고 쓰고 있다. 셋째는 이화여전의 교육사상이다. 이화여전은 문학이 생산되는 하나의 문학 장으로 볼 수 있다.²¹⁾ 식민지 시대에 수용된 근대적 젠더의 틀에 ‘균열’로 존재했던 이화여전 교육사상은 전숙희의 작가의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학생기독

19) 전숙희, 「우정과 배신」, 「감방생활도 해보고」, 전집 1권.

20)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주체를 향하여』, 소명출판, 2009, 54쪽 참조. 전숙희 수필 속의 Y는 여성문학평론가 임순득이다.

21) 윤유나, 「이화여전 출신문인과 여성문학장」, 동국대 석사논문, 2016.

교청년회 문학부가 발간한 교지 『이화』에는 ‘청년’에게 요구하는 사명과 아울러 전문학교 출신 ‘여성’의 사회적 기여를 요구한 논설들이 실려 있다.

전숙희가 산 시대와 사회의 지형 위에 전숙희의 문학을 올려본다. 전숙희의 초기소설이 지닌 소설사적 의미를 짚어보고, 소설가 전숙희가 수필가로 장르전환을 한 내적 필연성을 추출해 본다.

2. 전숙희의 초기소설과 수필로의 장르전환

2.1. 전숙희 초기소설의 의의

매일신보사는 1941년 4월 8일자 신문에 매일신보 출판부가 『여류작가집』을 출판한다고 기사를 내보냈다. “이 책에 수록하는 작가는 노천명, 최정희, 모운숙, 이현옥, 박화성, 이선희, 강경애, 임옥인, 김말봉, 전숙희(무순)씨 등 제씨의 명편들이다.” 이 기사는 전숙희를 여성작가의 대열에 포함하고 있다. 전숙희 외에도 이현옥(지하련), 임옥인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현대 조선 여류문학 선집전경』²²⁾(1937) 또는 『여류 단편결작집』(1939)과 차이가 있다. 등단은 임옥인이 1939년~40년, 전숙희가 39년, 이현옥이 40년으로 엇비슷하다. 이들은 등단이 늦어 조선일보사의 ‘여류문학집’시리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매일신보사의 것에는 들어가게 된 것이다. 『여류작가집』은 아마도 출판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박화성은 『매일신보』의 소설연재 청탁을 거절한 이야기를 친일을 하지 않

22)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전경』, 조선일보사 출판부, 1937.에 수록된 작가와 시인은 강경애, 김말봉, 김오남, 김자혜, 노천명, 이선희, 모운숙, 박화성, 백국희, 백신애, 장덕조, 장영숙, 장정심, 주수원, 최정희의 15명이다. 『여류단편결작집』, 조선일보사 출판부, 1939.에는 강경애, 장덕조, 이선희, 박화성, 최정희, 노천명, 백신애의 단편이 실려 있다.

은 예로 쓰고 있는 만큼 매일신보사에서 내는 책에 자신의 작품을 수록하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전숙희가 작가로서 대접을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전숙희는 왜 임옥인이나 이현옥(지하련)처럼 『문장』을 통해 등단하지 않고 여성교양지인 『여성』을 통해 등단했을까 하는 의문을 품어본다. 전숙희는 시는 김상용, 소설은 이태준, 연극이론은 서항석, 문학사는 이희승 선생에게 배웠다고 했다. 이태준은 『문장』의 소설 추천 위원이었다. 그러나 『문장』이 창간된 것은 1939년이다. 전숙희가 소설을 열심히 쓰던 때는 아직 『문장』이 나오기 전이고, 선배인 모윤숙과 노천명이 모두 『신동아』, 『동광』 등에 작품을 발표하고 시집을 냈으므로 문단에 등단하고 활동을 했으므로 『여성』지에 작품을 발표하고 등단하는 것에 별 저항감이 없었을 것이다.²³⁾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전숙희는 1학년이던 1933년 조선일보사에서 공모한 장편소설에 응모하기 위해 장편소설을 썼다. 1학년생인 전숙희는 왜 장편소설쓰기에 도전하였을까? 이것은 말팔로서 현상금(천원)을 향한 도전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 비록 가작, 또는 차석²⁴⁾이라 실망한

23) 이 사실과 관련하여 『이화』에 적힌 이화여전 문과 교수진을 잠시 살펴보면 이태준은 공식적으로는 교수로 기록되어있지 않고 『이화』4집(1932)에 '서무외사부 선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태준은 『이화』 6집(1936)과 7집(1937)에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나오므로 계속 전숙희를 지도할 위치에 있었다.(박지영, 「식민지시대 교지 『이화』연구-지식인 여성의 자기표상과 지식체계의 수용양상」, 『여성문학연구』 16호 2006, 9쪽, 각주 15.) 또 한 사람 시인 김상용은 영문학 교수로서 소설을 쓰는 시인이었다. 시를 배웠다고 했지만 신과소설을 20편이나 쓴 김상용은 20년대에 이미 신과소설 6편을 상재하였다. 통속소설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는 신과소설은 누이 김오남의 학비를 벌기 위했으리라 보는데(조경덕, 『월과 김상용의 소설창작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8집, 2012) 김상용은 전숙희에게 장편에 쉽게 도전하는 용기를 주었을 수도 있다. 한편 모윤숙과 노천명의 시를 『신동아』에 실는 도움을 준 편집부장 주요섭은 “이화여전의 교육목적은 모범적인 주부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도로서 전도하는 것”(『조선여자교육사』, 『신가정』 1934.4, 206쪽)이라고 해 모윤숙과 노천명 시의 게재가 조선문단 주체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도 본다.(윤유나, 앞의 글, 25쪽)

24) 당시 신문에는 예선 통과자도만 나온다.

나머지 원고를 없앴다고 하지만 이 장편소설 습작은 전숙희의 글쓰기 역량을 키운 중요한 작가수업이 되었을 것이다. 1966년 전숙희는 『여수상간다』를 저술하여 출간하면서 후기에 이 책을 쓰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했다. 대단한 필력이 아닐 수 없다. 그 필력은 장편소설을 쓰면서 길러진 것이라고 본다. 전숙희가 1954년 수필집 『탕자의 변』을 출간할 때 노천명은 발문²⁵⁾에서 “그는 앞으로 소설을 쓸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고 박영준도 『탕자의 변』을 읽고 “앞으로의 소설문학으로 말미암아 더욱 빛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²⁶⁾라고 전숙희에게 소설가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전숙희가 쓴 소설은 13편²⁷⁾에 이른다. 이중 장편이 두 편, 단편이 6편(영문 포함), 콩트가 5편이다. 초기소설에서 장편소설과²⁸⁾ 영문소설을 빼면 단편과 콩트가 반반씩이고, 길이와 형식상 콩트라기보다 단편으로 분류해 옳을 작품이 대부분이다. 전숙희는 수필집 『탕자의 변』을 내면서 권

25) 노천명, 「전숙희의 수필집에 붙임」, 『탕자의 변』연구사, 1954.6. 발문.

26) 박영준, 「『탕자의 변』을 읽고」, 『동아일보』 1954.8.29.

발표지구분	발표시기	작품제목	발표지
영문단편	1934 ?	들국화	해의 영자지
장편	1934	만종(晩鐘)	조선일보장편소설 응모작
단편	1937	코스모스	이화 제7집
단편	1939 10	시골로 가는 노파(老婆)	여성
콩트	1940. 6	탄식(嘆息)하는 피주부	여성
소품	1941.6	애정(愛情)	신세기
단편	1953.11	미완(未完)의 서(書)	문화세계
콩트	1954.2	명일(明日)	신태양
단편	1954.3	우화(寓話)	신천지
콩트	1954.11	범부범부(凡夫凡婦)	(탕자의 변에 수록)
콩트	1954.11	회신(灰燼)	(탕자의 변에 수록)
단편	1957. 6	귀로(歸路)	사상계
장편	2002	사랑이 그녀를 쏘았다	정우사

28) 이 장편소설 원고는 작가가 없었다고 한다.

말에 콩트 3편을 실는다. 「범부범부(凡夫凡婦)」는 2백자 원고지 40장, 「명일(明日)」이 40장, 「회신(灰燼)」이 44장이다. 『여성』의 콩트특집에 실린 「탄식하는 피주부」의 길이는 23장이다. 한편 단편소설로 발표된 「코스모스」는 30장 길이이다. 우리문학 초창기에는 단편소설의 길이가 20~50장 길이였다.²⁹⁾ 단편소설로 발표된 「시골로 가는 노파」가 70장, 「우화」가 65장, 「귀로」가 60장이니 40여 장의 길이면 좀 짧기는 하다. 그러나 전속희의 소설 10편에서 콩트형식에 맞는 것은 「탄식하는 피주부」 1편뿐이다. 보통 단편소설이 인간의 삶을 온전한 태도로 그려나가는데 반하여, 콩트는 한 사건의 어느 순간적인 모습을 포착하여 그것을 예리한 비판력과 압축된 구성, 그리고 해학적인 필치로서 반어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사건의 진전이 클라이맥스에서 예상 밖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결말에서 반드시 반전이 이뤄진다.³⁰⁾ 전속희는 형식으로 보아 콩트라기보다 단편소설이라고 할 만한 이 글들을 왜 콩트라고 수필집 권말에 실었을까? 전속희는 『탕자의 변』을 출간하면서 수필가로 출발하고자 했던 것 같다.

2002년에 쓰인 장편 『사랑이 그녀를 쏘았다』를 제외하면 1933년부터 1957년까지 약 23년에 걸쳐 쓰인 전속희의 소설은 그의 나이 18세부터 42세까지, 생의 가장 왕성한 활력의 시기에 쓰인 것들이다. 말을 바꾸면 제2차 세계대전과 해방, 육이오전쟁 등 격동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개인으로도 결혼과 출산, 피난으로 점철된 혼란과 고난의 역정이어서 공백기 또는 침체기를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시기였기에 가장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암흑기의 전속희

29) 『청춘』(1917) 현상문예응모 단편소설의 기준은 23자 100행 내외로 2백자 원고지 12장 정도였으나 입상작을 보면 23장에서 50장까지 다양했다. 김명순의 3등 당선작 「의심의 소녀」는 23장 길이의 단편소설이다.

30) 콩트는 '장편掌篇소설' 또는 '엽편葉篇소설'이라고도 한다. 콩트를 소설의 길이로 분류하자면 단편소설보다 더 짧은 분량이다. 콩트는 대개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의 분량으로 되어 있다.

콩트,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1. 30

의 소설은 여성작가의 활동이 거의 없었던 시기의 소중한 자산이며, 또한 육이오전쟁기의 소설 역시 귀중한 증언으로 남았다.

여성주의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은 「코스모스」인데 「애정」 「미완의 서」 「범부범부」 「회신」 역시 여성의 시각으로 쓴 여성심리소설이어서 여성소설로 함께 묶어 살펴보고자 하며, 세태소설은 「시골로 가는 노파」 「탄식하는 피주부」 「우화」 「귀로」이나 전쟁소설 「명일」도 함께 세태소설로 묶어 살펴본다.

2.1.1. 여성의 자기실현문제와 남성의 허위의식 고발

「코스모스」 「애정(愛情)」 「회신(灰燼)」

이화여전 문과 2년 재학 시³¹⁾ 1937년 6월『이화』지에 발표한 단편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라는, 소녀취향의 꽃 이름이 제목으로 등장하여 감상적인 내용일 것이라는 독자의 선입견을 보기 좋게 전복하는 전숙희의 처녀작이자 수작이다. 나혜석의 「경희」 이후 처음 등장하는 여학생의 시선으로 결혼문제를 다룬 이 소설은,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나혜석이 부모가 강제하는 결혼을 거부하는 주인공을 통해 주체의 선언을 보여주었다면, “결혼은 꿈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임무의 시작”이라며 똑똑한 여성은 사회적 책임과 가정의 책임 모두를 이룰 수 있다는³²⁾ 이화의 교육정신인 슈퍼우먼 콤플렉스의 비애를 그려 여성의 자기실현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코스모스」는 학생시절의 길(吉)이와 결혼 후의 길이를 대비하는 구조로 짜여있다. 결혼 전과 후의 변화를 절묘하게 보여주는 기호가 코스모

31) 「코스모스」가 실린 『이화』7집의 부록에는 학부형의 주소가 실려 있다. 이 부록에는 전숙희가 문과2년생으로 적혀있다. 이화여전은 4년제로 예과1년 본과 3년인데 38년 봄 졸업한 전숙희가 이때(37년) 문과 2년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학적부 일실로 확인이 안 되는 데서 오는 혼란이 있다.

32) 박지영, 「식민지시대 교지 『이화』연구-지식인 여성의 자기표상과 지식체계의 수용양상」, 『여성문학연구』 16호 2006, 12.31, 64쪽.

스, 베루, 기타(guitar)다. 길이는 코스모스와 들국화를 무척 좋아했고, 강아지 베루를 사랑해서 함께 자고 늘 데리고 다녔으며 기타연주로 방송에도 출연하는 재원이었다. 잡지에 글도 쓰고 신문현상소설에 응모하려고 밤을 새워 장편을 쓰기도 하며 영화광이기도 해서 화장술에 대한 지식과 방법이 미용사를 능가할 정도여서 ‘나’는 길이에게 문학방면으로 나가면 꼭 성공할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런 길이가 2년 전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다. 코스모스가 둘러싸인 집 뒤는 산이고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코스모스꽃밭인 집에는 하얀 토끼, 닭, 좋은 개, 양들이 있는 선경 같은 집엘 다녀왔다며 자랑하던 길이는 바로 그 집으로 결혼해 들어가게 된 것이다. 결혼한 길이는 침착해지고 점잖아져 우리는 놀랐고, 그리고 한 동안 만날 기회가 없었다. 길이가 낳은 아들의 백일을 축하하려고 ‘나’는 길이의 집을 방문한다.

일 년 동안에 그의 모양은 몹시도 변하였다. 얼굴은 초췌하여지고, 옛날에 보든 그 무사기(無邪氣 · 인용자)한 웃음은 그림자조차 엿볼 수 없었다. 그러나 몽글몽글한 귀여운 아기를 들여다보며 그의 야윈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이 떠오르는 듯했다. 33)

길이는 달라졌다. 얼굴도 초췌하였을 뿐 아니라 먼지를 쓴 채 벽에 걸린 기타는 ‘어따 팔아나 버려야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베루는 먹는 게 많이 든다 하여 친절로 돌려보내버렸다고 한다. 그보다도 달라진 것은 코스모스꽃밭이다. 꽃밭에는 모조리 시퍼런 무청과 배추만이 자라고 있다. 기타와 베루와 코스모스…… 이 세 가지 기호의 상징적인 변화는 길이의 변화된 삶을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희생적인 모성애에서 사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

33) 전숙희, 『코스모스』, 『이화』 제7집, 이전학생기독교청년회 문학부 발행, 1937.6.

러나 길이가 그다지도 속히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희생해버릴 줄이야, 그는 벌써 책상 앞에서 자신의 포부와 이상을 실현시키고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려 노력하던 길이는 아니고 부엌에서 귀여운 아들의 장래의 성공을 위하여만 염려하고 계획하는 길이가 되었다. 인정은 변한다. 길이는 역시 평범한 하나의 모성이었구나.

가는 햇발이 아직도 따뜻이 끝없는 추억에 잠기어있는 내 몸을 적시어주고 있다.

코스모스! 길이!

저 건너편 담 밑에는 한 무더기 코스모스가 무엇을 호소나 하는 듯이 가는 바람에 고요히 나부끼고 있다. 34)

“책상 앞에서 자신의 포부와 이상을 실현시키고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려 노력하던 길이”는 결혼 후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만 염려하고 계획하는 어머니가 되었다.³⁵⁾ 코스모스는 슈퍼우먼의 꿈을 지녔던 주인공의 변화와 비애를 그리는데 매우 적절한 장치로 기능하며 작가는 화자인 ‘나’의 시선을 통해 이러한 길이의 삶을 문제제기의 도마에 올려놓는다. 우리 여성소설사에서 슈퍼우먼복플렉스의 최초의 소설화다. 주인공 길이의 학창시절 정보는 작가 전숙희의 전기적 사실과 일치한다.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등 다방면에 재능을 보이는 길이의 캐릭터에 전숙희는 자신을 투여하고 있다. 이화여전을 졸업하는데 5년이 걸린 것과 이 소설의 정보를 참고하면 전숙희는 이때 결혼하고 있었지 않은가 추측되며 이런 자전적 내용을 대담하게 소설화하는 작가 전숙희의 면모를 주목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숙희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를 지향하는 요즘 용어로 ‘알파 걸’이었음에 틀림없다. 알파 걸의 갈망은 자칫 슈퍼우먼 콤플렉스로 이어진다.

34) 전숙희, 『코스모스』, 위의 책, 148쪽.

35) 박지영은 이 소설이 당대여성들의 자기실현의 욕망이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 속에서 어떻게 좌절되어 가는가를 보여준다고 했다. 박지영 앞의 논문, 64쪽.

「애정」은 소품(小品)이라는 단서를 붙여 게재된 25장 길이의 작품이다. 그러나 내용은 「코스모스」와 비슷하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자 친구와 약속한 자기실현의 꿈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떠난 친구의 이야기로 작품 수준이 만만치 않다. 편지형식인 이 소설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도 화를 내지 않는 ‘나’는 떠나간 독설가이자 백만장자보다 오만했던 친구를 그리며 편지를 쓴다. 그들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문학을 위해 일생을 바치자고 약속한 절친한 친구이다. 고아인 그는 ‘나’의 집으로 옮겨 와 한 방에서 지낸다. 친구와 나는 공부에 대한 정열이 온몸을 태우는 듯했다. 자칫 소녀적 감상주의에 빠질 줄거리가 생명력을 얻는 것은 ‘나’와 ‘너’의 독특한 개성과 둘의 관계가 엇보이는 대화가 자못 신선하기 때문이다. ‘너’는 말이 없다. “왜 또 무언중에 걸렸니?” 하면 쪽지에 “웅변은 침묵은 금”을 써 내던진다. “침묵이 금이라면 도금이겠지. 벗겨놓구 보면 실상 납만두 못한 걸. 아는 척하구 나대다 실수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실상 아무 것두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 요런 무지를 슬쩍 침묵이라는 도금으로 보기 좋게 캄플라주 해 놓는 건 정말 너답지도 않은 현명이다.” 라고 나는 대꾸한다.

너는 밤낮 나를 입으로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모른다. 무슨 일이나 잘못 된 건 사정없이 욕을 해줬다. 나는 너한테 줌처럼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잘한 일이라도 네 뒤틀어진 성격은 그걸 그리 솔직하게 칭찬하거나 그러기를 싫어했다. “제법이로군.” 하고 한 마디 내던지면 그만이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불쌍하다고 했다. “너는 몰라도 나는 네 성격 중에서 참 비극적인 성격을 가끔 발견하기 때문이다. 극히 평범한 여성이면서도 또 그렇게 평범하게만 살 수 없는 어떤 묘한 성격이 너를 불행하게 할 것이다.”³⁶⁾

온갖 독설을 들으면서도 그를 사랑한 것은 그의 공부에의 치열함 때문

36) 전숙희, 「애정」, 『신세기』, 1941.6, 48쪽.

이었다. 친구 ‘나’의 사랑을 저버리고 ‘너’는 예술가라는 남자를 만나 애정을 ‘발견’하자 떠났다. 나를 알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애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는 ‘너’는 “나는 너를 보기 좋게 배반했다. 그러나 내가 상상치도 못하던 새로운 애정의 세계를 발견한 것이 죄악이냐?” 메모를 써놓고 밤새 사라진 것이다. 독신으로 지내면서 문학에 일생을 바치자는 약속은 역시 소녀적 감상이었던가? 그러나 친구의 냉철한 지성과 재능을 위약적이라만큼 자신을 낮추며 아끼는 ‘나’의 마음이 이 소설을 단순한 감상에서 건져낸다. 남자와의 애정이 자기의 꿈을 버리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코스모스」의 경우와 닮았다. 작가는 화자 ‘나’를 통해 남자와의 애정 앞에 자기를, 꿈을 쉽게 버리는 여성을 비판하고 있다.

「미완의 서」는 환도 전 피난지 부산에서 있었던 일을 환도한 서울에서 회상하며 쓴 소설이다. 남편이 납북된 후 정선은 두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사는데 어느 날 10년도 전에 약혼했던 영환을 만난다. 부모의 반대로 이루지 못해 안타깝던 옛사랑을 극적으로 만나자 정선은 재결합을 꿈꾸게 된다. 영환 역시 아내를 복에 두고 내려온 처지. 그러나 정선은 영환을 낫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포기하는 편지를 남기고 서울로 올라온다. 서간체의 애절한 호소의 문장이 능숙하여 전숙희의 문장력을 재인식하게 한다. 왜 ‘미완의 서’인가. 포로교환이 진행 중이기에 남편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남편이건 영환이건 찾아오면 그때 끊어진 편지를 이어 쓰겠다는 것이다. 모성과 여성의 갈등이라는 혼한 소재라고 하겠으나 제목이 「미완의 서」이듯 남편인지 옛 애인인지 이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심장하다.

계제 지지를 알 수 없는 「범부범부」는 수필집 『탕자의 변』에 실린 짧은 소설이다. 콩트로 발표되었으나 앞에서 언급했듯 필자는 소설로 보았다. 이 소설은 생활 속의 쇠말 사를 대화로 채치 있게 끌고 나가 부부라는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린 것이다. 사소한 의견차가 이혼을 생각하는 극단의 지경에까지 가지만 아내 명숙의 인내와 믿음으로 이 부부는 무사히 화해에 이른다. 남편 성훈의 대화도 개연성이 있지만 아내 명숙의 낭만적

이고 비현실적이며 예민한 감수성을 보이는 대화도 일품이다. 배운 여성이고 교양을 갖춘 여성일지라도 부부란 적당한 선에서 범부(凡婦)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아내 명숙의 대응은 이화여전의 교육, 지식여성으로 사회에 기여하되 기독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한 여성고유의 역할은 유지한다는, 보수적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회신」역시 『탕자의 변』에 콩트로 실린 소설이다. 44장 길이의 짧은 소설이다. 육이오전쟁이 나기 전 이동준과 윤은혜는 가슴조이며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동준이 유부남이었기 때문이다. ‘죽는 날까지 서로의 마음을 한 덩이로 곱게 끌어다가자고’ 맹세하며 삼년간이나 함께했던 그들이었지만 육이오전쟁이 나자 이동준은 은혜에게 온다간다 말도 없이 부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환도와 함께 돌아온다. 우연히 모임에서 만난 이들은 어떤 기회에 단둘이 만나게 된다. 이때 이동준이 다시 옛날의 분위기로 몰아가며 맘을 돌이키라는 말에 다시 어떤 감정이 가슴에 꽃히기 전 윤은혜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불은 벌써 꺼졌어요. 다 타버린걸요……” 회신(灰燼)이다. 남성의 에고이즘과 허위의식을 전쟁을 배경으로 적시한 주제가 신선하다.

2.1.2. 노인 등 소외된 계층의 삶 추적

「시골로 가는 노파」 「탄식하는 피주부」 「우화」 「귀로」

전숙희가 단편소설로 쓴 소설은 세대소설이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옛날의 ‘어른’으로서의 위상을 빼앗기고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몰락한 노인과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노처녀를 주제로 쓴 소설이 네 편이나 된다(콩트 포함). 노인의 삶을 즐겨 다룬 소설가 이태준의 지도를 받은 작품이 아닌가 짐작된다. 「시골로 가는 노파」, 「탄식하는 피주부」, 「우화」, 「귀로」와 「명일」도 세대소설로 함께 살펴본다.

「시골로 가는 노파」는 화자가 ‘우리’라고 말하는 ‘나’의 시선으로 뒷방할머니의 신산한 삶의 일면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등단작인 만큼 문장이

나 주제가 탄탄하다하겠으나 일인칭 제한 시점에다 평면적 구성이라, 절정의 단계에 오르지 못하고 이야기는 대단원에 이르고 만다. 전속희 소설에서 화자가 일인칭제한시점인 ‘나’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 소설이 단편소설의 길이를 유지하면서 현재 과거 현재의 단순한 시간구성조차 무시하고 오직 말하기의 수법으로 끌여가는 데서 오는 한계가 이 작품의 한 결점이 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보 전달이 ‘보여주기’인 경우 직접체험이 주는 감동에 진입할 수 있으나 화자가 ‘말하기’로 전달하는 정보는 독자에게 간접체험이 되어 실감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소설의 길이가 짧을 때는 순차적 시간 구성이더라도 화자가 ‘말하기’로 요약적 정보를 전달해도 크게 힘이 되지 않는다.

뒷방할머니는 나의 집에 세든 노인이다. 가족이라고는 딸 사위라는 후줄근한 남자 하나가 종종 들를 뿐 딸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외롭고 고단한 노인은 딸 사위가 다녀가는 날만 기다리며 고적하고 무료한 날을 견디며 지낸다. ‘우리’는 뒷방할머니의 기생 딸이 왜 오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우리는 할머니로부터 그 딸이 좋아하는 남자를 따라 할머니의 딸 사위인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갔고, 자기를 색주가로 팔았어도 그 남자만 좋다고 따라다닌다는 것을 듣는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딸이 다녀간다. 그러나 그 딸을 사랑해 이 할머니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딸 사위를 숙여 밤중에 왔다가 새벽같이 돈만 받아가지고 도망쳐버린다. 절망한 뒷방할머니는 그만 시골로 떠나고야 만다. 따지고 보면 치명적인 사랑이 내재한 이야기에다 순정적 사랑을 지닌 딸 사위의 간절함도 혼한 이야기는 아닌데 표면에는 의지가 없는 무력한 노파와 때 묻은 두루마기 자락의 딸 사위에 관한 정보뿐이라 노인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키기보다 뭔가 답답한 느낌이 가로막는, 아쉬움을 주는 소설이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노인은 이미 소외계층에 속하기 시작했고, 가난하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조차 문제였다. 뒷방할머니가 딸도, 딸 사위도 의지할 수 없게 되자 절망하는 모습은 점증하는 노인의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했다고 하겠다.

「탄식하는 피주부」 역시 시대가 변하여 결혼풍속이 바뀌자 잔칫집에 가서 음식 대접받는 재미로 살던 피주부를 실망하게 했다는 이야기다. 피주부는 잔치 대신 나눠준 웨딩케이크를 뭇지 알 수 없어 벽을 향해 내던지고 만다. 「우화」도 중매쟁이를 직업으로 사는 뚜쟁이 마누라이야기다. ‘우화’란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뜻한다. 50대인 주인공 이 뚜쟁이 마누라는 소설 속에서 ‘마누라’로 호칭된다. 마누라는 시앓을 본 다음 방물장사로 나서서 남의 집을 자유로 드니다다가 중매쟁이로 직업을 바꾼다. 마누라의 남편인 영감은 돈 떨어지고 기운 떨어져 계집도 다 떨어지자 마누라에게 기어들어 온 처지로 해소기침과 속병을 앓고 있다. 집을 나서는 마누라에게 담배 값을 조르던 영감은 어느 날 복통을 호소하며 의사 좀 불러 달라 사정한다. 그러나 소금 통만 들여놓는 마누라에게 도리어 불호령만 들었을 뿐이다. 마누라는 이날 중매쟁이 노릇이 잘 풀려 수입이 좋은 김에 영감을 위해 여송연을 사가지고 집으로 오면서 영감이 원하는 동물원에라도 가도록 돈을 얼마 쥐어 주리라 한다. 막상 집에 오니 영감은 숨이 끊어져있다. 마누라는 온갖 구박을 한 영감을 후히 장사지내고 날마다 절에 다니며 극락에 가도록 정성을 드린다. 영감이 죽자 그제야 마누라가 정신을 차린다는 이야기인데 마누라의 마음의 변화가 갑작스러운 탓에 개연성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남편의 죽음 전에도 자식 셋을 다 잃은 과거가 있음에도 마누라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 할만하다. 중매쟁이 마누라의 화술이나 이야기의 전개는 상당히 자연스러워 차라리 돈의 노예가 된 노욕의 인물을 그리는데서 그쳤더라면 소설이 살았을 것 같다.

「명일(明日)」은 육이오전쟁 후 포로교환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온녀(溫女)의 슬픈 이야기다. 신혼 석 달 만에 전쟁에 나간 남편 정대위가 포로교환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온녀는 날마다 포로교환 현장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며 기다린다. 포로가 되었다가 탈주해 온 어떤 장교로부터 남편 정대위가 자기와 함께 분명히 포

로가 되어 갔었다는 말을 들었기에 남편이 돌아오리라는 기대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포로교환의 마지막 날까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 절망해 쓰러진 온녀에게 지켜보던 장교 두 사람이 다가와 위로한다. 내일이 있다고, 포로교환은 오늘로 끝이더라도 북에는 아직도 수많은 포로가 억류 되어있다고 다시 한 번 내일을 위해 자중하라고. 온녀는 안개 속에 잠겨있는 송악산과 또 그 북쪽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현장묘사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평면적 서술의 전개가 아쉬운 소설이다.

「귀로(歸路)」는 노처녀 유순하 선생의 이야기다. 유순하 선생은 모 중학교의 영어선생이다. 해방 전에 영어선생으로 취직을 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였다. 독립운동 하러 상해로 간 아버지는 객사하여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생활하기에 빠듯한 봉급에 결혼 적령기를 놓치는 바람에 노처녀로 쓸쓸한 나날을 보낸다. 12년 전에 로맨스가 있었지만 아내가 있는 남자였고 그는 아내가 있는 함흥으로 가 버리고 말았다. 마흔이 넘은 올드미스교사로 판이 박힐 즈음 유순하 선생은 교장으로부터 자격 없는 교사라며 정리하고 통보를 받는다. 허전하여 변화한 거리로 나온 그녀는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질벅거리는 거리에서 적막을 느끼며 그 적막 속을 무언가 이제부터는 진정한 내 생활을 찾아야만 되겠다는 절박감이 차츰 스며들고 있음을 느낀다.

2.2. 소설에서 수필로의 장르전환, 그 내적 필연성

전숙희 초기소설을 살펴보는 작업은 작품 찾기부터 만만치 않았으나 보람이 있었다. 여성소설사에 작가 하나를 추가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전숙희는 일제말 등단하여 암흑기 침체된 우리 소설사에 세편의 문제작 소설과 콩트 한편을 남긴 작가다. 해방 후에도 주목되는 소설작품을 발표했으며 당시 전숙희는 어엿한 작가로 인정받으며 활동했다. 그럼에도 그가 수필가로 장르를 전환하여 활동했기에 여성소설연구에서 이제야 그의

작품을 찾아본 것에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이화여전은 1900년대 초 이화학당 시절부터 학생들이 ‘이문회以文會’를 조직하여 문학 활동을 하였으며 이화여전 학생기독교청년회 문학부는 1929년부터 1938년까지 교지 『이화』 발간을 통해 이화여전의 교육 사상을 전하면서 남성중심의 문단에 균열을 일으키는 하나의 여성문학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화』는 모윤숙, 노천명, 이선희를 필두로 김오남, 주수원, 백국희 등 많은 문인을 배출했으며 그 중 한 사람이 전숙희다. 전숙희가 등단하는 30년대 말 40년대 초, 우리말을 할 수도 쓸 수도 없었던 암흑기에 여성의 자기실현문제와 노인문제 등 소외된 계층의 삶을 추적하는 소설을 쓴 수필가 전숙희의 초기소설 발굴과 재조명은 충분히 의의가 있다.

전숙희의 여성소설들은 첫째 가정에서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자기실현 역시 할 수 있다는 슈퍼우먼 콤플렉스를 지닌 주인공들이 결혼제도와 사랑이 장벽이 되어 자기실현의 꿈이 좌절되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우리 근대여성소설은 사랑이나 교육을 찾아 기출을 하거나 고발을 할지언정(백신에 「낙오」, 이선희 「계산서」) 슈퍼우먼콤플렉스를 고민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전숙희의 초기소설은 주목에 값한다. 둘째 여성소설의 암흑기인 일제 말 우리 여성소설사에서 소중한 유산으로 「코스모스」 「시골로 가는 노파」 「애정」 등 세 편의 소설과 콩트 「탄식하는 피주부」를 남겨주었으며 50년대에 발표한 여성소설 등 6편의 소설 역시 값지다.

전숙희가 수필로 장르전환을 하여 문학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전숙희의 초기소설에서 수필로의 장르전환이 손쉬웠거나 오히려 선택하게 된 내적 필연성을 살펴본다. 전숙희 소설은 첫째 ‘나’의 시점으로 쓰는 글이 다수이다. 「코스모스」, 「시골로 가는 노파」, 「애정(愛情)」, 「미완(未完)의 서(書)」가 그것이며 여주인공의 시각으로 그린 「범부범부(凡夫凡婦)」, 「회신(灰燼)」, 「명일(明日)」도 3인칭 제한시점이어서 일인칭 제한 시점과 비슷한 효과를 낳는다. 편지 형식, 심리소설이 그래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둘째는 그의 소설과 콩트 대부분이 평면적 구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소설

은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입체적 구성을 통해 주제의 심화를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숙희 소설은 시간적 역진이 없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지닌다. 셋째는 길이가 짧다는 점이다. 즉 전숙희는 짧게 쓰는 글을 선호한다. 넷째는 작가의 체험이 녹아있는 소설의 경우 성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스모스」, 「애정(愛情)」 등이 그 예이다. 「코스모스」의 주인공 길이의 결혼 전의 모습은 전숙희의 전기적 사실과 일치를 보이고 있고, 「애정(愛情)」의 경우도 ‘나’에게서 전숙희를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전숙희의 소설적 특징은 수필적 글쓰기로 이행해 가기에 적합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수필은 자기 체험을 재료로 하는 문학이다. 자기 체험을 중심으로 소설을 썼을 때 이룬 성공(이라고 여긴)은 전숙희로 하여금 수필양식에 친근감을 갖게 하였으리라 보인다.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도록 외부환경도 단순치 않았다. 그 자신이 술취하였듯이 “결혼은 나의 사상, 나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게다가 계속하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나의 시간과 정력은 모두 생활 속으로 소모되었다. 나는 드디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은 씻어버렸다. 그 추궁의 끈기와 밀도(密度), 정력(精力), 과 시간을 주변 없는 나로서는 쪼개 낼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³⁷⁾이었다. 그야말로 슈퍼우먼 콤플렉스를 고민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역시 내 본 고향인 문학가족에서 소외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쓸 수 있는 수필을 쓰곤 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몇 편의 소설을 지상에 발표하고도 끝까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선생들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끝까지 소설가로 남지 못한 채 미수자가 되어버렸다.”³⁸⁾ 고 전숙희 스스로 말했듯이 끝까지 소설쓰기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37) 전숙희, 「나의 문학적 산책」, 『밀실의 문을 열고』, 국민문고사, 1969. 4.20.11쪽.

38) 전숙희, 「미수인생」, 『그리고 지나간 것은 모두 즐겁게 생각되리니』, 문학세계사, 1991. 24쪽

그렇다면 전숙희 수필문학의 특성은 어떤 것일까? 소설에서부터 자기 폭로와 고백에 대담성을 보인 전숙희는 자신의 수필쓰기의 방법과 자세를 ‘솔직성’과 ‘진정성’으로 천명했다. 1959년 9월 『사상계』에 발표한 수필 「산」에는 전숙희의 수필 창작방법이 나온다. 산과 함께 한 아름다운 체험을 쓴 다음, 산에서 발견한 ‘천년이고 백년이고 변함없는 바위들과 천년백년 해마다 소생하는 나무숲의 영원한 생명력을 바라다보며 삶의 엄숙함과 꾸준함, 또 꾸밈없는 솔직한 표현을 배워야만 할 것 같다.’고 했다. 산에서 솔직한 표현을 배웠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각지에서 쏟아져 나와 베스트셀러를 이루는 ‘사소설³⁹⁾’이 감동을 주는 것은 대담하도록 솔직함에 있다고 말하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내가 항상 느끼고 또 스스로 마음에 다지는 것은 꾸밈없는 솔직한 표현을 해보자는 것이다. 글 뿐 아니라 내 생활전체를 알고 모르고 있고 없고 간에 부끄럼 없이 있는 그대로를 털어놓고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만 하겠다.”⁴⁰⁾라고 천명하듯 말하고 있다. 1978년 자전에세이 『청춘이 방황하는 길목에서』의 서문에서도 “잘 쓰려고 하기보다는 도금칠하지 않은 글, 포장되지 않은 내 마음의 형태를 숨김없이 나타낼 수 있는 솔직한 글을 쓰리라고. 내 감정은 아직도 가린 옷을 마저 벗어던져야 하며 사고의 깊이와 예지의 광채를 생명으로써 붙여넣어야만 하리라”고 책을 내며 다짐하고 있다. 87년 출간한 『또다시 사랑의 말을 한다면』의 서문에서는 “책에의 감명은 유명이나 무명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실 그것이 결정짓는다는 것을...우리들 영혼과 영혼이 통할 수 있는 진실한 글만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했다. 김현주가 전숙희의 수필에서는 현학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지만 전숙희는 자신의 삶을 해부하여 가감 없이 솔직히 고백하는 것을 그 방법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39) 이 글에서의 사소설은 자전적 소설을 말할 것이다. 일본의 문학용어로서 사소설과는 다른 의미이다.

40) 이 수필은 『한국여류문학전집』7, 한국교양문화원, 1977. 전숙희 수필 편에 28편의 작품과 함께 실려 있다.

다.

전숙희는 소설 발표를 중단하는 동안 수필을 써서 여기저기 싣는다. 1936년에 『이화』지에 발표한 「낙화」를 시작으로 1949년부터 『신천지』, 『문예』, 『문화세계』와 『자유문학』, 『현대문학』, 『사상계』 등에 발표한 수필을 찾은 것이 40여 편이다.⁴¹⁾ 1954년의 첫 수필집 『탕자의 변』에 실린 것도 있고 실리지 않은 것도 있다. 말하자면 전숙희는 50년대에 들어서

41)

1936	낙화	이화 6집	1955.	내 마음	
1939.7	흰빛	女性	1955.1.4	새로운 싸움터로	동아일보
1940.7	간절한 소원	女性	1955.1.23	여류의 1일 작가 전숙희	동아일보
1940. 2. ~15.	현대여성과 이상①~④	매일신보	1955.12	입원실에서	현대문학
1949.8	病床記	신천지	1956.7	바다위에서-상항 에서일본까지	자유문학
1949.8	가두 소감	문예	1957.2	독백	현대문학
1949.11	어느 날의 일기	여학생사	1957.8	상반기	자유문학
1949.11	어느 날의 심경	문예	1958. 4.19	백환짜리화제 여류문인다방 진출기	동아일보
1950.2	눈 오는 거리에서	문예	1958.8	향학기행	자유문학
1950.2	문학소녀 때의 추억	민성	1958.9. 1	현대인의 성윤리	신문화
1950.5	신록과 마돈나와	경향신문사	1958.11	감정 있는 계절	자유문학
1952.1	제사	신천지	1959.3	나의 하루	자유문학
1952.5	골든 벨	신천지	1959.8.5	펼벽 작 영원한 사랑	동아일보
1953. 2	사치	문예	1959.9	산	사상계
1953.6	숙녀가 되기까지	문화세계	1959.12. 31	스마일한 태양이 있는 가정을	동아일보
1953.7	황혼	금융조합	1962. 8.1	비오는 여름밤	동아일보
1953.9	우수기	문예	1964.6	무지의 매력	현대문학
1953.9	다시서울에돌아와서	신천지	1969.10	애환의 광장	현대문학
1954.1	발자국	문화세계	1970.7	껌을 씹으며	현대문학
1954. 9	추모	신천지	1970.9	실수의 추억	현대문학
1955.1	예고 없는 사건	현대문학	1988.1	나의 새해설계	현대문학

소설쓰기에서 수필쓰기로 글쓰기의 중심을 차차 바꾸어 가고 있다. 1952년 1월 『문예』의 문학적 초상 화③, 「여류군상」칼럼자는 김말봉, 최정희, 모운숙, 노천명, 손소희, 장덕조, 강신재를 거론한 다음 전숙희는 ‘멘(면)도날 같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유일한 여류수필가.’라 쓰고 있어 50년대 초 이미 수필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한편 위에서 언급했듯 첫 수필집 『탕자의 변』 출간 이후 1955년 아세아재단 파견으로 미국 문화계 시찰 차 미국을 방문하여 10여 개월 머무르며 컬럼비아대학에서 비교문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귀국하여 여행기 『이국의 정서』를 출간 하는 등 사회활동이 활발해졌다. 1957년 제29차 도쿄 국제 펜대회에 참석한 이후 매년 국제 펜대회에 참석하는 중에 전숙희는 한국문학의 해외소개에 이바지 할 것을 자각, 이를 본인에게 부여된 숙명으로 여기게 된다.⁴²⁾ ‘여류작가’에게 수필 청탁이 자주 들어오는 것은 당시 신문이나 잡지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고 이에 응하는 동안 전숙희 스스로 부담 없이 쓰게 된 수필로 장르전환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화여전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 기여하라는 선구여성으로서의 사명감은 사회활동과 수필쓰기를 병행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3. 나오면서

1930년대, 이화여전 재학시절부터 소설쓰기로 시작한 전숙희의 문학은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4,50년대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수필쓰기로 장르를 전환한다. 이글은 1936년 수필 「낙화」, 1937년 단편소설「코스모스」 두 편을 발굴하면서, 등단작인 「시골로 가는 노파」외 10편의 소설과 콩트를 대상으로 전숙희 초기소설의 가치를 해명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42) 벽강 전숙희 연보, 『문학관』 47호, 30쪽.

39년 「시골로 가는 노파」로 등단 절차를 거친 전숙희는 1941년 4월 매 일신문사의 『여류작가집』에 작품을 실는 여성작가 중 한 사람으로 임옥인 이현옥(지하련)의 신인작가들과 나란히 거명되었다. 전숙희의 처녀단편 「코스모스」는 우리소설사에서 슈퍼우먼 콤플렉스를 처음 문제 삼은 획기적인 작품이다. 지식인여학생의 눈에 비친 여성의 결혼문제를 나혜석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문제 삼았다는 의의도 있다. 전숙희는 결혼이나 사랑이 여성의 자기실현에 장애가 되는 것을 고민한 작가다. 적지 않은 성과인 초기소설을 찾아 읽는 과정에서 여성적 자기실현을 문제 삼은 전숙희의 여성소설적 가치를 찾을 수 있었으며, 41년 발표한 「애정」과 함께 일제 말 암흑기의 소중한 소설사적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등단작과 아울러 해방 공간의 소설에서는 노년소설과 전쟁기의 소설 등 세태소설양상을 보여주며 「범부범부」 「회신」 등은 섬세한 여성심리와 남성의 허위의식 및 애고이즘을 잘 포착한 명편이다.

전숙희는 그의 소설에서 ‘나라는 일인칭 화자를 즐겨 사용했으며 시간적 역진을 허용하지 않는 등 수필쓰기와 유사한 글쓰기의 특징을 보이며 자기를 분석하여 솔직히 드러내는 글에서 감동을 낳는 장점을 살려 자연스럽게 수필쓰기로 장르전환을 한다.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격동기의 삶을 살아야 했던 전숙희의 상황이 수필쓰기로 가게 하는 외부적 조건이었다면 소설쓰기에서 수필쓰기로 전환하는데 이러한 동질성은 내적 필연성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52년 『문예』의 한 칼럼은 전숙희를 여류작가군에서 거론하면서 “멘(면)도날 같이 날카로운 여류수필가 전숙희”라고 해서 이 시기에 전숙희는 이미 수필가로 알려졌음을 알 수 있었다.

54년 첫 수필집 『탕자의 변』은 우리 수필문학사에 획을 긋는 저작이다. 월탄 박종화는 서문에서 당시 방계로 여기로 쓰는 수필이 아니라 진정으로 수필을 쓰는 이는 김진섭 전숙희 두 사람뿐이었다고 하여 전숙희의 수필문사학적 위상을 짚었다. 전숙희가 생각한 수필쓰기의 방법과 자세로 ‘솔직성’과 ‘진정성’을 찾아 제시한 것도 이 글이 낳은 성과의 하나이다. 소설에서 글쓰기를 시작한 전숙희는 자신의 체험을 재료로 하는 수필쓰

기에서 냉정한 객관적 시선을 유지함으로써⁴³⁾ 자신을 숨김없이 고백하여 전숙희의 수필문학의 특성을 이룩하였다. 전숙희 수필의 가치를 필자는 솔직한 고백에 두며 이를 전숙희의 위대함이라 부른다. 앞에서 전숙희의 문학에서 유념할 세 가지 중 40일간의 옥살이 체험은 그의 문학에서 이 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게 하였고 아버지 대신 가장의 역할을 자부하는 의식은 그로 하여금 글 쓰는 여성이 되게 하였으며, 이화문학장의 영향은 슈퍼우먼의 콤플렉스를 고민하게 해 이를 고발하는 문학을 낳았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는 전숙희를 새롭게 만났다. 그의 수필 뿐 아니라 30년대에서 50년대의 소설과 그의 전력(前歷)에는 그가 평생 이룬 화려한 성취의 싹이자 그 뿌리가 이미 담겨있었다. 일제시기 함경도 무산에 살 때 산욕이 채 끝나기도 전, 아기를 숨 포대기에 싸 업고, 영하 40도의 두만강빙판을 건너 만주에 가려던 전숙희의 모습은 그의 세상을 향한 높은 꿈과 기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 눈 덮인 두만강 앞에선 전숙희의 모습은 하나의 아우라로 그의 문명(文名) 위에 남았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문학의 제단에 올린 그의 수필의 발표 지지를 찾아 작품연보가 만들어져 그의 문학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이화』 『여성(女性)』 『신세기』 『문화세계』 『신천지』 『문예』 『자유문학』 『현대문학』 『사상계』
 『조선일보』 『매일신보』 『중앙일보』 『한성일보』 『동아일보』
 『전숙희 문학전집』 7권.

43) 이덕화 교수가 적시한 것처럼 소설쓰기에서 훈련된 객관적 시선이 자기 성찰에 이어진 때문일 것이다. 이덕화, 앞의 글.

전숙희 수필집 목록

1954	탕자의 변	연구사	1987	또다시 사랑의 말을 한다면 신작에세이	제삼기획
1956	이국의 정서	희망출판사	1987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	해문출판사
1969	밀실의문을 열고	국민문고사	1988	어둠이 가면 빛이 오듯이 대표에세이	문음사
1972	삶은 즐거워라	조광문화사	1990	아직도 가슴 속엔 불가 강이 흐른다	삼성출판사
1974	나직한 말소리로	서문당	1991	그리고 지나간 것은 모 두 즐겁게 생각되리니	문학세계사
1977	청춘이 방황하는 길목에서	갑인출판사	1992	가진 것은 없어도	동서문화 출판부
1981	영혼의 트랙에 내리는 비	갑인출판사	1994	해는 날마다 새롭다	예술
1985	우리의시간이 타는 동안	서문당	1995	문학 그 영원한 기쁨	혜화당
1987	오늘을 산다	자유문학사			

전숙희, 『여수상 간디』, 국제문화사, 1966.

구상, 김남조 외 94인, 『내가 본 전숙희』, 동서문학사, 1999.

전숙희, 『사랑이 그녀를 쏘았다-한국의 마타하리, 여간첩 김수임』, 정우사,
2002.

전숙희, 『가족과 문우들 속에서 나의 삶은 따뜻했네』, 2007.

한국여류문학인회편, 『한국여류문학전집』, 한국교양문화원, 1977.

2. 단행본

서정자, 「선각자 나혜석의 도전과 인문정신」, 『나혜석문학연구』, 푸른사상,
2016, 175쪽.

오영식,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 소명출판, 2010.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주체를 향하여』, 소명출판, 2009, 4, 20. 54쪽.

3. 논문

김상태, 「장르의 관점에서 본 전숙희의 수필」, 『작고문인 재조명 벽강 전숙

- 희수필가』, 한국여성문학인회 제16회 정기세미나, 2011년 6월2일, 자료집, 9~20쪽.
- 김현주, 「공정적 문화로서의 수필-전속희론」, 『한국근대 산문의 계보학』, 소명출판, 2004, 292~295쪽.
- 박지영, 「식민지시대 교지 『이화』 연구-지식인 여성의 자기표상과 지식체계의 수용양상」, 『여성문학연구』 16호 2006, 31~78쪽.
- 윤유나, 「이화여전 출신문인과 여성문학장」,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6.
- 이덕화, 「전속희 수필에서 나타난 확신에 찬 비전」, 『작고문인 재조명 벽강 전속희수필가』, 한국여성문학인회 제16회 정기세미나, 2011년 6월2일, 자료집, 23~33쪽.
- 조경덕, 「월파 김상용의 소설창작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8집, 2012, 205~230쪽.

Abstract

A Study of Essayist Chun Sook-Hee's Early Prose Fiction

- With a Focus on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Korean Prose Fiction and the Internal
Necessity for Genre Transition

Seo, Jung-Ja

The present study unearths and analyzes Chun Sook-hee's (1919~2010) early prose fiction to determine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history of Korean prose fiction and examines the internal necessity for her genre transition from prose fiction to the essay. After making her literary debut with the publication of the short story "An Old Woman on Her Way to the Country" in the magazine *여성(Woman)* in 1939, she was active as a writer, publishing over ten tales up to 1957. The present study excavates the short stories "Garden Cosmos" (1937), which Chun published as a student in the Faculty of Liberal Arts at Ewha Women's [ssc] College (present-day Ewha Women's University) before her official literary debut, and "Affection," which she published in 1941, and focuses on them as problematic works depicting the issue of women's self-re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emale intellectual-students and as significant works in terms of the history of Korean prose fiction for portraying the superwoman complex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n women's prose fiction. Works published after the Korean War (1950~53) such as "Ordinary Husbands and Ordinary Wives," "Ashes," and "An Unfinished Book" likewise are noteworthy as women's psychological

prose fiction.

Although Chun started out as a writer, full of unrivalled passion for literature, she came to transition in genre from prose fiction to the essay after undergoing cataclysms such 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1910~45) and the Korean War. The present study sees characteristics of the writer's prose fiction including the frequent use of first-person narrators, bold use of self-revelatory subject matters, and strict avoidance of temporal retrogression in the structure as having acted as the internal necessity for her smooth transition to the genre of the essay. As supporting evidence, it presents the essay composition methods explicated by Chun. As such, the present study will serve as one direction in research on her literature in addition to excavating and assessing her early prose fiction as women's prose fiction.

Key words : Chun Sook-Hee's Early Prose Fiction, Genre Transition, "Garden Cosmos," "Affection," "Ashes," Superwoman Complex, *Ewha, The Statement of a Tangja(Prodigal Son)*

■ 본 논문은 2016년 7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